

# 불교학생회 창립봄...호남불교 '파란불'

### 광주·전남교사련 추진...40개 중고교 결실 매달 사찰순례·민족문화 정신 배워

'호남불교의 앞날이 밝다.'  
광주·전남교사련자연합회가 광주 시내 80개 중·고교중 1일 첫행사를 가진 동산여고를 기점으로 40개 학교에 불교학생회와 불교문화봉사단을 창립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전남교사련자연합회가 86년부터 '우리민족의 동량을 기우자'고 발원하며 추진해온 중·고교 불교학생회 및 불교문화봉사단 창립운동은 청소년수계회와 무등산 환경정화 및 백일장대회에서 3천여명의 학생이 참가하는 성과로 드러나고 있다.  
각 학교의 불교학생회와 문화봉사단은 매달 1회 사찰을 순례하며 우리 불교문화를 통해 슬기를 배우고 자신을 찾는 시기에 주지스님의 가르침으로 진리를 일깨울 수 있어 널리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으며 여타 미합립학교에서도 관심이 높은

상태다.  
광주 동산여고 불교문화봉사단은 7월 31일부터 1일까지 5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 보성 대원사 출가생활 1박2일 수련회에 참가한 것으로 첫 창립행사를 가졌다. 수련회에서 학생들은 예불과 108배 정진, 참선, 티벳불교 슬라이드 상영,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청소년 문답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광주 송원여상 불교문화봉사단의 경우는 1백5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창하여 여러가지 여건상 1백여명으로 회원을 확정하는등 학교에서 인기몰이로 알려져 있다.  
중앙중학교 불교문화봉사단(지도 교사 강구)은 학년별로 50명씩 편성돼 활동하며 한달에 1회 사찰을 순례하며 주지스님 초청법회를 보고 있다.



◇광주시내 중고등학교 불교문화봉사단 창립 수계식. 앞줄은 광주·전남교사련자연합회 김진택 회장(중)과 함께한 교사불자들이 매달 법회와 불교교리공부를 실시하고 역량이 되는대로 각 학교에서 불교학생회나 문화봉사단 창립을 서두르고 있다. "청소년 포교를 위해서는 교사불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전남교사련자연합회 김진택 회장은 "현재 1백여명의 교사불자들이 매달 법회와 불교교리공부를 실시하고 역량이 되는대로 각 학교에서 불교학생회나 문화봉사단 창립을 서두르고 있다"며 "청소년 포교를 위해서는 교사불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 우리 모임에선

### 성원살리기 서명 확산

(주)성원 화의신청 서명운동본부(본부장 해송스님)는 12일 부산 연산동 코리아나에서 교계와 언론인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명운동 촉진을 위한 모임을 갖고 교계의 힘을 하나로 모아 다각적인 방법으로 성원살리기에 동참키로 했다.  
한편 성원은 3일자 한겨레신문의 '성원토건 부도직전 특혜 지원 의혹'이라는 기사와 관련 "시기적으로 98년초부터 7월까지의 공정을 근거로 지급하고 수령한 공사기성금을 마치 부도 며칠전에 지급하고 수령한 것으로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 국회보좌진 사찰순례

국회보좌진불자회(회장 정병국) 사찰순례법회가 22일부터 23일까지 3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강화도 보문사에서 열렸다.  
이날 사찰순례법회는 108배 기도정진, 참선순례로 진행됐다. (02)784-3860



###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개관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개관준비위원회'(위원장 율주)는 14일 경기 광주군 퇴촌면 나눔의집(원장 혜진)에서 역사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 이인제 신한국당고문, 임창렬 경기도지사, 대동주택 광장환희장(건물기증자), 조영자 보살(부지 기증자) 등 6백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불교방송과 불교TV는 15일 용인 효암미술관 정원에서 광복53주년 8·15 예술한가당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18면>



### 청담복지관 노인보호센터 개소

서울 해명복지원(이사장 동광스님) 산하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성)은 8월18일 노인주간보호센터 개소식 및 경로잔치를 행했다. 개소식에는 도선사 주지 동광, 금천구의회 최병순회장, 금천구청 이영대 시민국장, 이우성 해명보육원장, 연꽃마을 회재식 노인주간보호센터장, 자양사회복지관 중앙에 관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로잔치에는 노인 4백여명이 초청됐다.



### 감로사 총담스님 49일 추모영산재

불교총종과 남북통일, 국가경제회복을 발원하고 지난 6월 소신열반한 태고종 원로 총담스님 49일 추모영산대제가 14일 청령 감로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모재에는 태고종 종정 보성스님을 비롯하여 인곡 총무원장, 지성 총무부장 등 종단 간부와 천태종 총무부장 극성스님, 정덕종 태고종 전국신도회장, 서석재 국회 정각회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 결식아동돕기 '자비의 탁발'

사람의 도시락 보내기 운동본부(대표 정각스님)는 19일 범일동 자유시장과 평화시장에서 결식아동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자비의 거리탁발'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굶주린 학생들의 실태를 알리고 종교계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운동본부는 ARS(700-1800)와 은행계좌, 지로 바자회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도 모금한다.

## "내 마음속 부처님 찾자"

### 나우누리 '부처님마을' 수련회 수계식·수제민 위한 기도법회

나우누리 불교동호회 부처님마을(회장 허무용) 하계수련회가 2일 경북 선산 도리사에서 열렸다(사진).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참선 및 철야정진을 비롯하여 수계식도 가졌다.  
도리사 주지 범등스님은 "신라최초의 가람 도리사를 찾은 불자들이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하여 내 마음속의 부



하계수련회 및 수계식. 부처님마을 회원들은 비파해를 당한 많은 주위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기원하며 철야정진 기도했다.

## 영어배우는 불자모임 탄생

### 화계사 국제선원 '더 보디사트바스' 외국인스님 회화·불법 무료 강의

국제화와 근접결약의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스님들이 직접지도하는 '영어를 배우는 불자들의 모임'이 탄생했다.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마련한 'The Bodhisattvas' 모임(반장 청공)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모임을 갖고 있다. 현재까지 가입한 회원은 학생이 주축을 이루는 초급반 15명과 직장인위주의 중급반 20명등 모두 35명이다.  
모임에서는 영어회화 무료강좌와 영어로 듣는 불교강의, 영어토론시간도 갖고 있다. 특히 'The Bodhisattvas'는 수준에 따라 초보반과 중급반으로 나눠 이원적 운영

하고 있는데 회와 토론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상적으로 영어를 생활화하고 있어 회화습득도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 출간한 외국스님들이 우리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생각하여 마련한 무료강좌는 영어에 명명스님(美교보대 졸업)이 '한국문화와 미국문화의 차이점' 등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다.  
화계사 국제선원 무심스님은 "많은 직장인불자들이 가입했으면 좋겠다"며 "이번 기회에 많은 불자들이 참여하여 불교공부도 하고 영어도 배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The Bodhisattvas' 모임의 회원들은 일요일 오후 1시부터 국제선원에서 열리는 참선과 영어법회에도 참가하여 무진스님의 법문을 듣는등 알찬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The Bodhisattvas' 모임은 영어에 관심있는 학생이나 직장인등 불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비는 무료이다. (02)900-4326

## 친절·쾌적한 병원만들기 '한뫼'

연경원 3천여평을 새로 증축하여 최근 준공검사와 고분식을 마치고 이사가 한창인 동국대 경주병원. 병원내에 설치된 의자들에 불자회 이름이 들어가 있을 만큼 불교병원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서비스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경주병원 불자회(회장 이영현, 진료부장)는 90년 동국대 경주병원 개원과 함께 발족했다.  
여러가지 행사로 병원을 홍보하고 불교병원으로서 친절한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지역내에서 기반을 확충했다. 또 8년만에 증축하는 의형적인 발전을 이룩했고 전체적

90년 개원 당시 발족 불서·불교영화 서비스 연등보시·환경보호도  
원 거의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불자회에 가입하는 성과를 이뤘다.  
경주병원 불자회는 해인법사를 주축으로 회장단 고문들이 숙한 지도부와 총무부 조직부 구도부 사회부를 두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병원에서 입원환자의 쾌적한 생

활, 신행생활을 통해 병원운영의 일부분을 담당할 만큼 불자회는 부서별로 맡은 일에 책임을 지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회원의 경조사와 회원 가입 및 퇴직 생일일 모든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여 선물과 도움을 주는 등 상부상조를 통해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매달 1회 열리는 법회를 비롯하여 수련회, 성지순례행사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물론 병원에 불교서적 배부와 불교영화 상영, 연등보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도 외부행사도 택시내 연등달아주기, 경주 유적지내 쓰레기수거등 환경보호활동, 전통한복 입기 운동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영현 회장은 "앞으로 무료 진료봉사활동을 추진하고 병원이용

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만들기에 불자회가 앞장 서겠다"며 입원환자들의 신행생활을 돕기위해 합장주를 보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 불자기업에 만원만 투자해 주십시오!

**전국의 불자 여러분!**  
**불자기업에 만원만 투자해 주십시오.**  
**일년 후 만이천원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대동소방은 1994년 창시 이래 소방기재 제조 및 판매분야에서 매년 100%이상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오고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세계최일류의 소방제품 메이커를 목표로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전직원이 불자로 구성된 교계의 보기 드문 불자 기업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IMF사태 이후 건설경기침체가 지속되자 저희들의 주거래선인 설비업체들의 연쇄부도가 거듭되어 현재까지 그 부도로 인해 당사가 입은 피해액이 약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전직원이 '일체유심조'의 사훈과 불심으로 화합하여 거듭되는 여러번의 위기를 극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 경기 침체가 더욱 심해지고 그간 당한 부도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간 부도금액의 4할 가량을 자체자금으로 변제하여 왔으나 현재는 담보여력 부족으로 은행권으로부터의 신규대출도 더이상 불가능하고 미수금들의 수금도 난

망하여 3/4분기 변제해야 할 3억원에 상당하는 부도금액 변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불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1년후 시중금리에 맞춰 만이천원으로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불자 여러분이 만원씩만 투자해 주신다면 이번 일시적인 부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단계 더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기에 이렇게 불자 여러분에게 도움을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매출액이 40억이었으며 올 상반기 매출액도 IMF위기에 불구하고 이미20억을 초과하여 작년 이상의 실적이 기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소방제품 수출도 시작하여 현재 \$200,000 가량의 L/C가 내도 예정이며 또한 약 \$300,000의 추가 상담이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이미 소액이나마 \$30,000의 수출에 성공한 상태라써 이 일시적 위기만 넘기면 저희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밝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천군만마의 원군을 얻은 심정으로 더욱 발

심 노력하여 건설하고 튼튼한 불자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전직원이 불자로 구성된 저희들은 저희들이 거둔 열매를 불교발전과 불민공포의 밑거름으로 회향할 것을 불자들에게 다짐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은 부도 잔액변제 및 제조생산기반 확충과 수출제품 개발을 위해 쓰여질 것이며 그 사용 또한 투명히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참여하실 방법**  
① 하기 당사구좌로 만원을 입금하여 주시고 그 입금증 사본을 팩스 혹은 우편으로 연락처, 성함을 명기하여 제시하거나  
② 전화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입금확인후 차용증 혹은 내용 증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투자모금액수: 5억원  
• 투자한도: 1인당 1만원이상 1백만원 이하  
• 투자 모집기간: 불기 2542년 7월 20일부터  
참고로 저희회사에 대해서는 불교신문 5월 26일자, 주간불교신문 5월 26일자, 현대불교 5월 27일자 및 매일경제신문 7월 1일자 26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佛子企業을 키워 주십시오.**  
**成佛하십시오.**  
대표이사 智眼 이남재 외 임직원일동 송수

**대표전화:02-215-0723**  
**FAX:02-246-8503**

**예금계좌**  
서울은행: 28701-3065308  
중소기업은행: 015-026140-04-011  
상업은행: 178-04-105683  
한일은행: 097-147931-13-501  
제일은행: 154-20-040173  
국민은행: 355-25-0003-678  
신한은행: 313-05-014055  
축협: 200-72-07640-717  
농협: 258-17-000764

**예금주**  
(주)대동소방

**주식회사대동소방**  
DAE DONG FIRE FIGHTING CO., LTD  
본사 대표전화(02)215-0723 FAX (02)246-8503  
서울시 용인구 답십리 5동 74  
지사 대표전화(051)772-0729 FAX (051)772-3923  
경북 경주시 용강동 304-3  
공정 경쟁 포항시 북구 상하면 서정리 679

▶8월 18일까지 이덕기 임옥민 백상현 이관규 임경문 김옥희 강병주 권기진 장경심 신현중 나숙희 최인사약수암 박동원 이기향 고명옥 홍연희 홍연희 이재욱 지은혜 정미은 진남관 윤명옥 김정봉 김윤분 이순자 박영수 김태운 이현숙 권재술 박현동 이종현 이재숙 이봉아 배경희 강중혁 오백주 구자원 천성봉 김금홍 허덕남 지현스님 허 주 서윤석 이석정 김성관 서승희 전이준 장정태 영원스님 조정현 오양자 한경호 이재욱 구영미 구본일 안택형 박분우 안준순 조호용 조인경 박진조 최경락 임희희 영광도서 원대권 박순은 수 중 배양용화사 이경숙 최임자 조명숙 김미경 조명숙 노화옥 이화이 정계명 오광수 김병곤 배영숙 윤원식 서은희 김덕화 장명만 이철은 이재선 박영린 손경자 김주덕 정은희 김유하 박진석 채봉수 강용은 이영숙 문옥남 김병순 김주훈 김미명 강순덕 이봉은 문대식 포항관음사 조지원보사 현영자 박동재 이현형 이경숙 김경자 강대영 김지숙 신우현 김영주 양재석 이경희 김효성 손순호 김인규 지현자 송병삼 최성연 김영환 김주형 주성 정현애 정학수 최정숙 윤혜애 이종태 태안사 김주자 박우명 지현자 구영자 이재준 이명숙 세안스님 최호스님 이혜정 배필수 최정숙 김정숙 연명순 정해진 명법사 김분남 보현사 성기훈 조선옥 황봉환 홍관사 지일스님 김양수 황선자 이종순 기강사 허경옥 권영하 권영순 허상수